

#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적 실험’

유 영 소\*

- I. 서론
- II. 19세기 초 코펜하겐의 철학적 심리학과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
- III. 상상의 심리학적 구성[실험]
  - 1. ‘인간학적 성찰’의 기획
  - 2. 가능성의 표현으로서 시(詩) 개념과 실존적 해석
  - 3. 간접전달의 범주로서 ‘실험’
  - 4. 심리학적 실험의 의의
- IV. 결론

## I. 서론

본 논문은 키에르케고어(Søren Aabye Kierkegaard, 1813-1855)가 익명으로

---

\* 홍익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2026647).

\* DOI <http://dx.doi.org/10.17527/JASA.54.0.05>

발표한 저술들에서 수행한 ‘심리학적 실험(Psychological Experiment)’을 주제로 한다. 키에르케고어의 저술에는 ‘심리학’이란 단어가 매우 빈번하게, 정확히 355회 등장한다.<sup>1)</sup> ‘신학(theology)’이 323회 나오는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숫자다. 키에르케고어의 저술에서 심리학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제목에 ‘심리학적’ 혹은 ‘실험’ 등의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한 사실에서도 드러난다.<sup>2)</sup> 매카시(Vincent A. McCarthy)가 『심리학자로서 키에르케고어』에서 지적했듯 “키에르케고어는 자연스럽게 당대의 철학적 심리학에 영향 받았으며, 그 이상으로 문학의 심리학적 통찰에서도 영향 받았다.”<sup>3)</sup> 그런 까닭에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은 현대 심리학과 다르고, 그가 ‘인간학적’ 혹은 ‘심리학적’이라는 용어를 쓸 때도 오늘날과는 의미에 차이가 있다. 몬딘(Battista Mondin)이 『철학적 인간학』에서 밝혔듯 철학 용어로

1) 이 숫자는 아이슬란드 대학 심리학교수 핀트(Jörgen L. Pind)가 온라인판 키에르케고어 전집의 용어색인(<http://sks.dk> 2013년 4월 4일 기준)에서 수집한 것이다. Jörgen L. Pind, “The Psychologist as a Poet: Kierkegaard and Psychology in 19th-Century Copenhagen”, in: *History of Psychology*, vol 19 (4) (Nov. 2016), pp. 352-370 (DOI: <http://dx.doi.org/10.1037/hop0000039>), p. 358 참조 .

2) 『반복: 실험적 심리학의 시도 *Repetition: A Venture in Experimenting Psychology*』(1843)는 제목에 ‘심리학’을 사용한 키에르케고어의 첫 번째 저술이다. 『불안의 개념』(1844)은 ‘원죄라는 교의학적 문제에 관한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단순한 연구(*A Simple Psychologically Orienting Deliberation on the Dogmatic Issue of Hereditary Sin*)’라는 긴 부제를 갖고 있다. 또 세 부분으로 구성된 방대한 저술, 『인생길의 여러 단계들』(1845)의 3부 『“유죄냐?”/ “무죄냐?”: 수난 이야기, 프라테르 타키투르누스에 의한 상상의 심리학적 구성(“Guilty?”/“Not guilty?” A Story of Suffering, An Imaginary Psychological Construction by Frater Taciturnus)』에는 ‘상상의 심리학적 구성’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죽음에 이르는 병』(1849) 역시 ‘교화와 깨달음을 위한 그리스도교적인 심리학적 탐구(*A Christian Psychological Exposition for Upbuilding and Awakening*)’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진다면 ‘심리학적’이라는 용어는 키에르케고어의 처녀작인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수록된 「그림자 그림: 심리학적 심심놀이(*Silhouette: Psychological Diversion*)」에 이미 나타난다.

3) Vincent McCarthy, *Kierkegaard as Psychologist*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2015), p. 11.

‘철학적 인간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은 최근에 들어서다.<sup>4)</sup> 고대와 중세에는 다른 표현들 즉 ‘영혼에 관해서(De anima)’, 또는 ‘인간에 관해서(De homine)’ 등이 사용됐다. 16세기 후반 학문으로서 심리학이 등장한 이래, 17세기 말에 재정의 되고, 18세기에 제도화된 영역으로 나타나는 발전과정을 추적한 비달(Fernando Vidal)은 18세기에는 심리학이 전공자에 의해 대변될 수 없었다고 말한다.<sup>5)</sup> 당시에는 심리학 교수나 학부도 없었고, 단일 학과 대학직도 없었기 때문이다. 계몽주의 시대 유럽 전역에 걸쳐 심리-인간학적(psycho-anthropological) 분야로 구현된 심리학은 본질적으로 인간학과 결속되어 있었다.

철학의 범주 안에서 인간의 심리현상을 탐구했던 심리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독립한 것은 19세기 후반이다. 1876년 라이프치히대학교의 철학 교수로 초빙된 빌헬름 분트(Wilhelm Wundt)가 최초의 심리학 실험실을 설립한 것이 기점이었다. 그러나 분트가 철학교수 신분이었다는 사실은 비달이 지적한 유럽 대학 내에서의 심리학의 불안정한 입지가 그때까지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오늘날은 영혼뿐만 아니라 인간 전체를 고려하는 철학적 연구 내용을 지칭할 때 ‘심리학’ 보다는 ‘인간학’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여긴다.<sup>6)</sup> 그러나 키에르케고어가 활동한 시기는 심리학이 과학으로 이행하는 과도기로서 심리학과 인간학의 경계가 모호했다. 키에르케고어는 1855년 임종 직전까지 저술활동을 지속했고, 분트의 실험실은 이후에 등장했으므로 생전에 실험심리학의 개화를 볼 수 없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실험심리학의 부상으로 과학적 심리학이 주도권을 잡게 되자 철학적 심리학은 차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에 접근하고자 한다면 철학적 심리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에 대한 연구는 해외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진척됐

4) Battista Mondin, *Antropologia Filosofica*, 허재윤 옮김, 『인간: 철학적 인간학 입문』 (서광사 1996), p. 22.

5) Fernando Vidal, *The Sciences of the Soul: The Early Modern Origins of Psychology*, trans. by Saskia Brow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 p. 99.

6) Battista Mondin, 『인간: 철학적 인간학 입문』, p. 22 참조.

다.7)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선행연구들의 주된 관심은 불안이나 절망 같은 심리 현상에 대한 키에르케고어의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주제를 다룬 국내 논문으로 홍준기의 「불안과 그 대상에 관한 연구 : 프로이트·라캉 정신분석학과 키에르케고어의 비교를 중심으로」(『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17집, 2001, pp. 234-267)가 있으며, 그 밖에는 키에르케고어의 사상을 수용한 실존주의 심리학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룬다.8) 심리학적인 동시에 미학적으로 접근한 경우로 안상혁의

- 7) 철학, 신학, 사회과학, 문학과 미학에 영향을 미친 키에르케고어의 주요 개념을 선별하여 사전적 의미와 덴마크어의 원뜻, 전체 저술 안에서의 각 개념의 발전을 망라한 5권 짜리 개념사전 *Kierkegaard's concepts*는 2005년에 출범한 집단연구 프로젝트 KRSRR(Kierkegaard Research: Sources, Reception and Resources) 시리즈의 일부다. 2015년에 발간된 5권 *Kierkegaard's concepts: Tome V: Objectivity to sacrifice*에 '심리학적 실험' 개념이 수록되어 있다. 선행연구 가운데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을 다룬 저술로는 덴마크 오르후스대학의 노던토프트(Kresten Nordentoft)의 *Kierkegaard's Psychology*를 꼽을 수 있다. 이 책의 1부에는 심리학적 관찰 및 실험에 관한 내용이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노르웨이과학기술대학 심리학 교수인 클렘페(Sven Hroar Klempe)가 2014년에 출판한 *Kierkegaard and the Rise of Modern Psychology*의 제1장은 '키에르케고어와 실험적 심리학'을 표제로 삼고 있지만 심리학적 실험과 관련된 주요 저술들의 분석이 주가 되고, '심리학적 실험'에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는다. 버클리대학의 첸시 탕(Chenxi Tang) 교수의 "Kierkegaard and the Culture of Psychological Experimentat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2006)는 심리학적 실험에 대한 미학적이면서 역사적인 배경 연구로서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첸시 탕 교수는 키에르케고어의 『아이러니 개념 *The Concept of Irony*』의 중국어 번역자로서, '실험' 개념이 본격적인 저술활동 이전의 학위논문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실험의 의미를 상세히 고찰한다. 2016년에 발표한 아이슬란드대학교 심리학 교수 요르겐 핀트(Jörgen L. Pind)의 "The Psychologist as a Poet: Kierkegaard and Psychology in 19th-Century Copenhagen"은 시인-심리학자로서 키에르케고어를 조명하고 있다. 그는 독일 심리학 전통에 중점을 둔 첸시 탕의 연구와 달리 19세기 덴마크로 범위를 좁혀서 심리학에 대한 키에르케고어의 문학적-상상적 접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탐색한다.
- 8) 년도 순에 따른 국내의 관련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김선희, 「실존의 고통과 실존 치료 - 키에르케고어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vol. 49 (2008), pp. 347-367; 오신택, 「롤로 메이의 실존주의 심리치료의 철학적 기초 : 키에르케고어의 불안개념과 연관하여」, 『철학연구』 130 (2014), pp. 135-159; 오신택,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에

『키에르케고어 철학에 있어서 불안과 자유의 의미』(박사, 홍익대학교 2014)와 김태인의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의 관점에서 본 심미적 실존과 시적 반성의 의미: 유혹자의 일기』를 중심으로』(석사, 홍익대학교 2015)가 있다. 안상혁의 논문은 '불안' 과 '자유'의 관계를 고찰하는 한편 '불안' 개념을 대중매체미학을 위한 미적 범주로 적용, 1930년대 중국영화를 분석한다. 김태인의 논문은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을 중심으로 심미적 실존과 시적 반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실존적 인간학의 관점에서 미학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심리학적 실험'과 관련된 주제인 '시'나 '시인' 그리고 '심미적 실존'에 관한 선행연구로 임규정의 시인의 실존: 키르케고르의 시인과 시의 개념에 관한 연구 1.』(『철학·사상·문화』 14, 2012, pp. 185-213)과 하선규의 키에르케고어 철학에 있어서 심미적 실존과 예술의 의미에 관한 연구-『이것이냐/저것이냐』, 『불안의 개념』, 『반복』, 『철학의 조각들』을 중심으로』(『미학』 76, 2013, pp. 219-268)를 들 수 있다. 이들 논문은 본 논의의 바탕이 되는 키에르케고어의 주요 개념들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들이다.

'심리학적 실험' 자체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해외에서도 단편적이고 부수적인 주제로만 취급되었다. 아마도 독문학과 철학 연구자인 첸시 탕 교수의 「키에르케고어와 19세기 심리학적 실험 문화」가 '심리학적 실험'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 속할 것이다. 첸시 탕 교수는 1840년대에 발표된 키에르케고어의 익명의 저술들이 그의 사후에야 빈 모더니즘에서 절정에 달한 실험적 심리학과 문학적 허구의 결합을 환기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것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가능했는가를 추적한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심리학적 실험의 초기 단계에서 인간 정신을 직접적 관찰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윤리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 신체 연구로 대상을 바꾸어 생리학으로 복귀한 과학적 심리학과는 대조적으로,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적 실험은 실험의 미학화(aestheticization)와 실존적 접근에서 대안을 찾았다. 즉 실험자의 관점을 실험적 주체(the experimental

---

서 키에르케고어 철학의 수용』, 『해석학연구』 36권 (2015), pp. 159-183; 김재철, 조현정, 「키에르케고어의 불안 개념에 대한 임상적 해석」, 『철학논집』 제37집 (2014. 5), pp. 117-148.

subject)의 관점으로 옴김으로써 실험적 심리학의 실존적 방법이라고 할 만한 것을 고안했으며, 동시에 미학적으로 정당화된 심리학적 실험의 문학적 모델을 향해 나아간 것이다.<sup>9)</sup> 첸시 탕의 연구가 실험심리학과 문학사의 맥락에서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적 실험이 지니는 독창성을 부각하고 있다면, 본고는 인간학적 성찰의 기획 속에서 키에르케고어가 수행한 미학적 전략으로서 심리학적 실험이 무엇인가를 고찰하는 데 집중한다.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적 실험들은 시적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또한 키에르케고어 자신이 규정한 바, 여타 예술작품들처럼 창작자 자신 바깥의 외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미적이다. 첸시 탕 교수도 지적했듯이 키에르케고어가 이해한 심리학적 실험가는 시인을 플롯의 제작자로 간주했던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에서의 시인이었으며, 심리학적 실험에서 인간 본성의 특성을 연역해내고자 플롯을 구성했던 그 자신이 바로 시인이었다.<sup>10)</sup>

본고는 그간 독자적으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심리학적 실험’이 정립된 배경과 실험 자체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앞서 밝힌 대로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철학적 인간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론의 전반부인 2장에서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이 형성된 배경으로서 19세기 코펜하겐대학을 중심으로 전개된 철학적 심리학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볼 터이다. 3장에서는 인간학적 성찰의 테두리 안에 ‘심리학적 실험’ 개념과 그 의의를 논한다. 여기에는 가능성의 표현으로서 시(詩) 개념과 실존적 해석, 간접 전달의 범주로서 ‘실험’에 대한 고찰이 전개된다. 또 마지막 절에서 ‘심리학적 실험’을 가장 광범위하게 전개한 익명의 저자 타키투르누스의 “유죄냐?”/ “무죄냐?”: 수난 이야기」를 중심으로 ‘심리학적 실험’의 미학적인 그리고 심리학적이며 인간학적인 의의가 제시될 것이다.

9) Chenxi Tang, “Kierkegaard and the Culture of Psychological Experimentat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in: *KulturPoetik*, vol. 6, issue 2 (1/1/2006), pp. 172-188, p. 177, p. 181 참조.

10) Chenxi Tang, “Kierkegaard and the Culture of Psychological Experimentat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p. 174.

## II. 19세기 초 코펜하겐의 철학적 심리학과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

키에르케고어는 1830년 10월 16세에 코펜하겐대학에 입학했다. 같은 해 대학입학을 위한 일반 자격(*Examen Artium*, General Certificate)을 취득한 그는 1831년 10월 27일에 2차 시험(Second Examination)<sup>11)</sup>을 통과한다. 1813년 이래 무려 57년간 코펜하겐대학에서 철학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했던 시베른(F. C. Sibbern, 1785-1872)은 당시 겨울 학기에 진행되는 2차 시험의 첫 번째 부분에서 형이상학과 인식론 그리고 심리학 기초 과정을 가르쳤다. 이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기말에 치르는 시험에 통과해야 했으며, 4월부터 9월 말까지 진행되는 여름 학기에 2차 시험의 두 번째 부분이 이어졌다. 여기서도 계속해서 심리학이 개설되었는데, 2차 시험이 신입생의 필수과정임을 고려할 때 대학 내에서 심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심리학은 시베른이 특별히 선호했던 과목으로, 그는 1819년과 1828년에 걸쳐 두 권짜리 심리학 논문을 발표했다.<sup>12)</sup> 그 중 첫 번째 논문은 2차 시험 과정을 위한 교재로 출판되었는데, 타자에 대한 관찰 및 자기 관찰(self-observation)에 근거한 일반심리학을 다룬 것이었다. 시베른

11) 2차 시험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부분은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역사, 기초 수학을, 두 번째 부분은 이론 철학(즉, 형이상학과 인식론), 실천 철학(도덕 철학과 심리학), 물리학, 고급 수학을 포함했다. Jon Bartley Stewart (ed.), *Kierkegaard and his Danish Contemporaries, Tome I, Philosophy, Politics and Social Theory* (KRSRR vol. 7) (New York: Routledge 2017 [2007]), p. 229 각주3.

12) 시베른이 쓴 두 권의 심리학 논문 중, 제 1권 *The Spiritual Nature and Being of Humans: An Outline of Psychology* (1819)는 일반심리학 저술이다. 2권 *The mental nature and essence of human beings: An outline of psychology* (1828)는 심리학적 병리학에 관한 것으로, 여기서 병리학은 감정과 정서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시베른은 심리학을 인간에게 공통적인 것을 다루는 일반심리학과 개인 차이와 인종 차이 그리고 정신병리학을 다루는 특수심리학(special psychology)으로 구분하여, 1권에서 전자를 2권에서는 후자를 주제로 삼았다 (Jörgen L. Pind, "The Psychologist as a Poet: Kierkegaard and Psychology in 19th-Century Copenhagen", pp. 353-354).

은 이 책에서 테텐스(Johan Nicolai Tetens, 1738-1807) 및 칸트와 일치하여, 공존하며 협력하는 의식의 세 가지 표현들, 즉 생명이 의식 안에서 혹은 의식에 대해 스스로를 표현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서 인식, 감정, 의지를 기술하고 있다.<sup>13)</sup> 또한 “심리학, 혹은 영혼의 과학(the science of soul)은 인간의 정신적(mental, [텐] åndelige) 본성이나 존재와 관련된 하나의 학문”이라고 규정하고, 그 연구 대상을 “의식에 관여하는 인간 삶의 모든 표명”으로 보았다.<sup>14)</sup>

키에르케고어가 입학한 첫 해에 철학 관련 강의들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시베른과 만난 것만은 분명하다. 앞서 밝힌 대로 2차 시험은 필수 과정이고 키에르케고어는 이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비록 스칸디나비아 밖에서는 시베른이나 덴마크 심리학이 이름을 떨치지 못했지만 덴마크 안에서 시베른의 영향력은 지대했다.<sup>15)</sup> 따라서 심리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관점 형성에 있어서 키에르케고어에 대한 시베른의 영향을 가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특별히 시베른이 자신의 첫 번째 심리학 논문에서 심리학자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빛을 던져 준다.

심리학자는 시인이어야 한다. 자신으로 하여금 인간의 다양한 내적 상태와

13) Jon Bartley Stewart (ed.), *Kierkegaard and his Danish Contemporaries, Tome I, Philosophy, Politics and Social Theory*, p. 236. 시베른의 심리학적 이론과 테텐스의 인간 의식 활동의 삼분법의 관련성은 Jörgen L. Pind, “The Psychologist as a Poet: Kierkegaard and Psychology in 19th-Century Copenhagen” p. 355를 참조할 것.

14) F. C. Sibbern, *Menneskets åndelige Natur og Væsen: Et Udkast til en Psychologie* (The mental nature and essence of human beings: An outline of psychology, Part I) (Copenhagen, Denmark: Første Deel 1819) p. 3 (Jörgen L. Pind, “The Psychologist as a Poet: Kierkegaard and Psychology in 19th-Century Copenhagen”, p. 354에서 재인용). 핀트의 글에서는 덴마크어 ‘åndelige’가 ‘mental’로 번역되어 있다. ‘åndelige’의 사전적 의미는 ‘영적으로 ghostly’, ‘정신적(spiritual)’이며, 정신이나 영혼에 관계된(pertaining to the spirit or the soul) 것을 의미한다.

15) Jörgen L. Pind, “An education in psychology: The development of psychology as a field of study at the University of Copenhagen 1850-1950”, in: *Nordic Psychology* 61 (2012), pp. 46-61 (DOI: <https://doi.org/10.1027/1901-2276.61.2.46>), p. 49 .

정서를 개인적인 방식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그것들에 정통하고, 그것들을 느끼도록, 그렇다, 마음속으로 그것들을 체험하도록 해야 한다.<sup>16)</sup>

현대 심리학자와 시인은 학문 분과로서나 직업의 범주, 어느 편에서 보더라도 연관성이 희박하다. 그러나 시베른이 제시하는 심리학자의 상(像)은 키에르케고어의 『불안의 개념』에 묘사된 '심리학적 관찰자'의 모습과 조화를 이룬다.

개인 안의 항상 단편적이고 다양하게 현존하는 것에서 전체와 불변하는 것 모두를 동시에 참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는(심리학적 관찰자는) 자신의 영혼 안에 어떤 시적 본래성(eine dichterische Ursprünglichkeit)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 그는 인간의 삶에서 것처럼 잘 정향되어 있으며 그의 눈은 종교재판관처럼 예리하기 때문에 그는 상상적 구성에(zum Experiment e)<sup>17)</sup> 도움이 될 바람직한 개인을 어디에서 쉽게 찾아낼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발견하는 모든 기분(jede Stimmung), 모든 심적 상태를 자신 안에서 모방한다.<sup>18)</sup>

16) F. C. Sibbern, *Menneskets aandelige Natur og Væsen: Et Udkast til en Psychologie*, p. 6 (Jörgen L. Pind, "The Psychologist as a Poet: Kierkegaard and Psychology in 19th-Century Copenhagen", p. 356에서 재인용).

17) 덴마크에서 'Experiment'라는 말은 외래어로, 키에르케고어 당시의 일반적인 덴마크어 표현은 'Forsøg(test, trial, venture)'나 'gjør Erfaring(to make experience)'였다. 더욱이 키에르케고어가 현재 분사형으로 만든 'experimenterende'나, 타동사처럼 쓴 'experimentere en Figur(experiment a character)'같은 경우, 덴마크의 영어 사용자라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영문판 전집을 번역한 홍(Howard Vincent Hong & Edna H. Hong) 부부는 일기나 여러 기록에 설명된 '실험' 개념을 근거로 '상상적 구성'으로 의역했다 (Søren Kierkegaard, *Kierkegaard's Writings, VI: Repetition*, Historical Introduction, xxi-xxii 참조). 그러나 덴마크어의 'Construction'은 'fabrication(제작, 구성)'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된 해석으로 보기도 한다 (Stewart, Jon Bartley & Nun, Katalin (ed.), *Kierkegaard's Pseudonyms* [vol. 17] [Aldershot: Ashgate Publishing 2015], p. 72 각주 40 참조). 독일어판은 'Experiment'를 그대로 썼으며, 『불안의 개념』의 역자 임규정은 '상상적 구성'으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실험'을 병기했다. 본고에서도 양자를 병용한다.

오늘날 심리학자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이 구절들은 시베른의 시인-심리학자 개념에 잘 들어맞는다. 하지만 키에르케고어가 『불안의 개념』의 저자로 내세운 하우프니엔시스(Vigilius Haufniensis)의 ‘심리학적 관찰자’는 현대 심리학자뿐 아니라 19세기 초반의 교수나 학자로서 심리학자와도 구별된다. 하우프니엔시스는 “현학적인 저서를 쓰거나 참고문헌을 찾는 데 시간 낭비를 하는 것”<sup>19)</sup>은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고 못 박는다. 이런 학자들이 언급하는 사례들에는 심리학적·시적 권위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시적 권위란 참고문헌에서 취한 사례나 반쯤 죽은 회상과 달리 “생동하면서形形色색으로 반짝거리는 자신의 관찰”<sup>20)</sup>에서 비롯하는 것이며, 시베른이 말한 바 “인간의 다양한 내적 상태와 정서에 정통하고, [...] 체험”하는 시인-심리학자에게 속한 것이다. 이때 강조되는 것은 관찰력과 상상력이다. 특별히 ‘상상적 구성’과 다양한 심적 상태의 모방 능력으로서 상상력에 대한 강조는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적 관찰자와 현대 심리학자를 결정적으로 갈라놓는다.

‘심리학적 관찰자’를 이해하려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시베른이 같은 논문에 제시한 자기 관찰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자신을 이해하려면, 남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의 마음을 주시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선을 다른 사람들의 삶과 행동에 맞춰야 한다. [...] 미지의 인간 마음이 그 심연에 담고 있는 것은, 자신의 심연을 직관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sup>21)</sup> 시베른의 자기-관찰은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적 방법에서 하나의 원리가 된, “하나를 알면,

18) Søren Kierkegaard, *The Concept of Anxiety: A Simple Psychologically Orienting Deliberation on the Dogmatic Issue of Hereditary Sin*, edit. and trans. by Howard Vincent Hong & Edna H. Hong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p. 55; 『불안의 개념』, 임규정 옮김 (과주: 한길사 1999), pp. 187-189 (각주에서 영문판은 CA로 표기).

19) CA, p. 54; 『불안의 개념』, p. 187.

20) CA, p. 55; 『불안의 개념』, p. 187.

21) F. C. Sibbern, *Menneskets aandelige Natur og Væsen: Et Udkast til en Psychologie*, pp. 4-6 (Jørgen L. Pind, “The Psychologist as a Poet: Kierkegaard and Psychology in 19th-Century Copenhagen”, p. 354에서 재인용).

모두를 안다(unum noris, omnes)”를 상기케 한다. 키에르케고어는 이 라틴어 문구가 ‘너 자신을 알라(γνώθι σεαυτόν)’와 동일한 것을 표현한다고 보았다.<sup>22)</sup> 그는 “만일 하나(unum)를 관찰자 자신으로 이해한다면, 그리고 그가 호기심을 기울이면서 모든 것(omnes)을 구하는 대신 실제로 모든 것인 그 하나(즉 관찰자 자신)을 굳세게 고수한다면”<sup>23)</sup>, 이 개별적인 것으로부터 모두에 해당하는 ‘보편적인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하나는 어떤 의미에서 전체’라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키에르케고어는 이 원리를 시베른이 표현한 것 이상으로 비상하게 발전케 하여 자신의 고유한 저술 세계를 구축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은 동시대 철학적 심리학의 특징과 고유성을 겸비한 것이다. 당시 코펜하겐대학의 필수 과목이었던 심리학이 배경이 되었기에 키에르케고어는 자기 저술에서 구태여 심리학이라는 용어를 정의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sup>24)</sup> 널리 유포된 시베른의 심리학 저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용어에 익숙했고, 독자들의 이해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덴마크의 심리학은 변화를 맞는다. 1883년에서 1915년까지 코펜하겐대학의 철학교수로 재임했던 회프딩(Harald Høffding, 1843-1931)과 그의 동료 크로만(Kristian Kroman, 1846-1925)에 이르러 철학적 심리학은 실증주의적 관점으로 전환된다. 더욱이 덴마크 실험심리학의 개척자 레만(Alfred Lehmann, 1858-1921)이 1886년 코펜하겐에 정신 물리학 실험실을 설립하면서 북유럽 국가들 중 처음으로 덴마크에 실험심리학의 거점이 마련되었다.<sup>25)</sup> 1918년까지 심리학

22) CA, pp. 79, 240-41; 『불안의 개념』, p. 234 원주와 236, 그리고 242-43의 원주에 대한 주 ⑬을 참조할 것.

23) CA, p. 79; 『불안의 개념』, p. 234 원주.

24) Jörgen L. Pind의 “The Psychologist as a Poet: Kierkegaard and Psychology in 19th-Century Copenhagen”, p. 9.

25) Jörgen L. Pind, “A Tale of Two Psychologies: The Høffding-Lehmann Controversy and the Establishment of Experimental Psychology at the University of Copenhagen”, in: *Journal of the History of the Behavioral Sciences*, vol. 45 (1) (Winter 2009), pp. 34-55 (DOI: <https://doi.org/10.1027/1901-2276.61.2.46>), p. 34 ; 핀트의 “The Psychologist as a Poet: Kierkegaard and Psychology in 19th-Century

은 여전히 철학 분과 내의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였지만 레만의 노력으로 독립 학과가 되었고, 시적 성격을 띤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은 설 자리를 잃고 만다. 키에르케고어는 결코 심리학을 자연과학의 일부로 보지 않았다. 정확히 말한다면 그의 관심은 심리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규정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심리학이 어떤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sup>26)</sup> 그에게 있어서 심리학은 주관성이 관계될 수 있는 모든 것 — 사생활, 특수성, 개성, 직접성 또한 정서와 체험과 관찰까지 — 을 아우르는 “주관적 정신에 관한 학설(the doctrine of subjectivity spirit)”<sup>27)</sup>이다. 때문에 다른 학문들보다 더 “인생의 물거품과도 같은 다양성에 도취될 수 있는 학문”<sup>28)</sup>이기도 하다. 또한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은 윤리적이고 철학적이며 신학적인 질문들을 함축하는, 한층 포괄적인 인간학적 양식에 휘말려 있다.<sup>29)</sup> 현대 심리학과 달리, 죄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절망의 변증법적 성격을 분석하는 등의 난제를 자발적으로 떠맡는 그의 심리학은 철학적이고 인간학적 뿌리와 연루된 큰 맥락 속에서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 III. 상상의 심리학적 구성[실험]

『키에르케고어의 개념들』에서 보벤(Martjn Boven)은 키에르케고어에게 있어서 ‘심리학적 실험’ 또는 ‘상상적 심리학적 구성’은 문학적 전략이라고 정의한다.<sup>30)</sup> 심리학적 실험을 수행하는 키에르케고어의 목적은 실존하는 개인을 살아

Copenhagen”, pp. 364-367 참조.

26) Sven Hroar Klempe, “Kierkegaard and Psychology as the Science of the Multifarious Life”, in: *Intergrativ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Science* 47, Sep. (2013), pp. 367-375 (DOI: 10.1007/s12124-013-9235-1), pp. 368-369.

27) CA, p.23; 『불안의 개념』, p. 119.

28) CA, p.23; 『불안의 개념』, p. 117.

29) Kresten Nordentoft, *Kierkegaard's Psychology*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1978), p. 75.

움직이게 하는 운동의 원천을 연구하는 데 있었다. 심리학을 지칭하는 덴마크어 'psykologi'는 '육체에 거하면서 그것을 지배하는 비가시적 운동 원리 혹은 실체'로서 '영혼(ψυχή, psukhé)'과 '말, 이론, 학문'을 뜻하는 '-λογία(-logia)'의 합성어이다. 어원적 의미에 비추보건대 키에르케고어의 목적은 문자 그대로 심리학적이다. 그런데 어째서 목적 수행의 방법으로 문학적 전략을 선택한 것일까? 무엇보다 키에르케고어의 관심은 실제 상황 속의 역사적 개인들을 재현하는 데 있지 않았다. 오히려 가상적인 상황에 놓인 허구의 인물들을 구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sup>30)</sup> 이처럼 상상적으로 구성된 상황과 인물을 통해 실험적 방식으로 실존적 갈등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 바로 '심리학적 실험'이다. 그러나 이것은 충분한 답이 아닐 것이다. 하필이면 실체가 아닌 가상의 상황과 허구의 인물을 구성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느냐는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다 더 근본적인 관심, 다시 말해 키에르케고어가 지녔던 궁극적 관심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 1. '인간학적 성찰'의 기획

키에르케고어의 관심은 다른 무엇보다 '인간'에게 있었다. 그의 저술에서 인간학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그의 인간학은 인간에 관한 외적인 정보로서 지식을 의미하지 않으며, 인간의 내면적 삶을 꿰뚫는 이해이다. 키에르케고어는 먼저 자신의 내면적 존재에 몰두함으로써, 또한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철두철미한 관찰에 의해서 이 같은 이해에 도달했다. 따라서 그의 인간학이 제시하는 것은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우며, 충분한 검증은 거친 인간관이다.<sup>32)</sup> 키에르케고어의 인간학의 근거가 되는 것은 두

30) J. Stewart, S. M. Emmanuel, & W. McDonald (eds.), *Kierkegaard's concepts: Tome V: Objectivity to Sacrifice. Emmanuel* (KRSRR vol. 15) (Surrey: Ashgate Publishing 2015), p. 159 (이후 *Kierkegaard's concepts V*로 표기).

31) J. Stewart 외, *Kierkegaard's concepts V*, p. 159.

개의 모순된 성질들의 종합으로서 인간에 대한 관념이다. 이것은 “인간은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의, 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자유와 필연의 종합”<sup>33)</sup>이라고 규정한 『죽음에 이르는 병』 첫 장에서 가장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키에르케고어 연구자 말란트쉴크(Gregor Malantschuk)는 생전에 출판되지 않은 방대한 분량의 『일지』를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키에르케고어가 1840년 6월에 쓴 “진정한 인간학적 성찰(the authentic anthropological contemplation)”<sup>34)</sup>이라는 표현에 주목했다. 키에르케고어가 현대적 사유의 본질적 과제로 파악한 ‘인간학적 성찰’은 궁극적으로 “단독성(individuality)이 창조의 발전에서 참된 마침표”<sup>35)</sup>라는 깨달음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 그의 중심 개념인 ‘단독자(the single individual, [덴] den Enkelte)’에 도달했다.<sup>36)</sup>

넓은 의미에서 ‘인간학적 성찰’이라는 주제는 인간을 다양한 심적-정신적 (mental-spiritual) 발달의 차원에서 또한 여러 가지 관점으로부터 숙고하기 위해

32) Søren Kierkegaard, *Søren Kierkegaard's Journals and Papers. Vol. I*, edit. and trans. by Howard V. Hong & Edna H. Hong (Bloomington/Lond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67-1978), p. 499 (총 7권의 영문판 키에르케고어 『일지』는 이후 JP, vol. no.로 표기).

33) Søren Kierkegaard, *Sickness Unto Death: A Christian Psychological Exposition for Upbuilding and Awakening*, edit. and trans. by Howard Vincent Hong & Edna H. Hong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p. 13; 임규정 옮김, 『죽음에 이르는 병』 (과주: 한길사 2007), p. 55 (이후 영어판은 SD로 표기).

34) JP. I 37, p. 36.

35) JP. II 1981, p. 392.

36) Gregor Malantschuk, *Kierkegaard's Thought*, edit. and trans. by Howard V. Hong and Edna H. Hong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5), p. 37. 키에르케고어는 1843년 『두 개의 건넌적 강화』의 머리말에서 처음으로 ‘단독자’라는 말을 썼다. 이때 ‘저 한 사람’이 암시한 것은 그의 약혼자였던 레기네 올센(Regine Olsen)이었다. 후에 이 개념은 비진리인 ‘무리’와 대립하는 진리 규정으로, 나아가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개인을 지칭하는 종교적 범주로 발전한다. (표재명, 『키에르케고어의 단독자 개념』 (서울: 서광사 1992), pp. 91, 117 참조) 본고에서는 ‘단독자’와의 개념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individuality’를 ‘단독성’으로 번역한다.

이뤄진 하나의 시도를 의미한다.<sup>37)</sup> 초기의 『일지』를 보면 키에르케고어가 연구, 조사의 목표로서 중세 정신의 성격묘사를 위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을 기획했던 것을 알 수 있다. 1836년 “미학적 잡록(雜錄) 2(Esthetic Miscellany No. 2)”라는 제목의 『일지』에서 “나의 기획([텐] mit Forehvende)”<sup>38)</sup>이라고 명명한 이 연구는 정신적-지성적 생활 전반 곧 문학, 예술, 종교, 과학 및 사회적 상황 속에서 그 시대의 특징적 인물들을 보편적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것이었다. 이 무렵 키에르케고어는 낭만주의를 비롯하여 시, 신화, 전설 등에 관한 미학적 연구에 심취했다.<sup>39)</sup> 특별히 신화와 시의 차이에 주목했는데, 시인의 경우 스스로 가능성의 영역에서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데 반하여, 신화들은 그것이 발생한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직한 현실성으로 간주되므로 양자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고 보았다. 이 같은 차이에 근거하여, 키에르케고어는 상상력에 의해 창조된 가능성들을 재현하는 시적 산물들을 ‘가정법’으로 특징지은 반면, 신화적인 것은 ‘직설법의 가설적 진술’로 보았다.<sup>40)</sup>

## 2. 가능성의 표현으로서 시(詩) 개념과 실존적 해석

‘가능성’의 영역을 다루는 시 개념은 ‘심리학적 실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다. 심리학적 실험은 가상의 상황과 허구의 인물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842년에서 43년경 『일지』에서 키에르케고어는 시 개념과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작(ποιεῖν, to make)’과 ‘행위(πράττειν, to do)’의 구별을 언급한다.<sup>41)</sup>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행위는 제작이 아니고, 제작은 행위가 아님”<sup>42)</sup>을 명시했다. 기술(art)에 관해서는 “모든 기술은 생성에 관련되며,

37) Gregor Malantschuk, *Kierkegaard's Thought*, p. 14.

38) *JP. V* 5219, p. 61, p. 477 (주 179).

39) Gregor Malantschuk, *Kierkegaard's Thought*, p. 13; Jon Bartley Stewart (ed.), *Kierkegaard and his Danish Contemporaries, Tome I*, p. 115 참조.

40) Gregor Malantschuk, *Kierkegaard's Thought*, p. 24.

41) *JP. V* 5292, p. 211.

기술의 관심사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 제1원리가 제작자에게 있고 제작물에 있지 않은 무엇인가가 어떻게 하면 존재하게 될는지 연구하는 것”<sup>43)</sup>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제작과 관련된 기술은 “인간의 좋음과 관련해 행동할 수 있는 이성적이고 참된 마음가짐”<sup>44)</sup>으로서 실천적 지혜와 비교할 때 목적론적으로 구별된다. 즉, 제작이 그 자체와 다른 목적을 갖는 데 비해, 행위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sup>45)</sup>

키에르케고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인 개념을 받아들여, 시인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가능성의 영역에서의 제작자라고 보았다.<sup>46)</sup> 하지만 시인과 가능성의 관계를 실존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시학으로부터 인간학으로 초점을 옮겼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가 개연성 또는 필연성의 법칙에 따라 가능한 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을 말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보고, 실제로 일어난 일(개별적인 것)을 말하는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고 진지하다”<sup>47)</sup>고 말했다. 『철학적 단편에 대한 결론적 비학문적 후서』의 익명의 저자 클리마쿠스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가능성-시적이고 지성적인-이 현실성보다 우월하다.”<sup>48)</sup>고 논평한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詩作)이라는 심미적 범주에서만 진실일 것이다. 반대로 “윤리

42)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천병희 옮김 (과주: 도서출판 숲 2013), 1140a 6-7, p. 226.

43)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1140a 11-15, p. 226.

44)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1140b 5-6, 21-22, pp. 228-229.

45)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1140b 7, p. 228.

46) Søren Kierkegaard, *Kierkegaard's Writings, XII: Concluding Unscientific Postscript to Philosophical Fragments (vol. I)*, ed. and trans. by Howard V. Hong & Edna H. Hong,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 388 (이후 CUP (Vol. I)/(Vol. II)로, 본문에서 『후서』로 표기).

47)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 시학』, 천병희 옮김 (과주: 도서출판 숲 2017), 1451a 36-37, 1451b 5, p. 371.

48) CUP (Vol. I), p. 318. 같은 구절이 『인생길의 여러 단계들』에서도 인용된다. *Kierkegaard's Writings, XI: Stages on Life's Way*, edit. and trans. Howard V. Hong & Edna H. Hong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p. 437 (이후 SLW로 표기).

적 관점에서 보면 현실성이 가능성보다 우월하다.”<sup>49)</sup>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는 모방자<sup>50)</sup>로서 시인의 관심은 ‘제작’에 있지 ‘행위’에 있지 않다. 하지만 그의 시 작품이 아무리 높은 차원의 관념성을 구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인 자신의 실존과는 무관하다. 클리마쿠스는 “만일 내가 그것을 행하고 싶지만 아직 하지 않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그때 내가 생각한 것은 [...] 사고-현실성(thought-actuality)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의 가능성”<sup>51)</sup>이라고 말한다.

키에르케고어의 실존적 인간학에서 가능성과 현실성은 존재규정으로 파악된다. 『철학적 단편들』에서 클리마쿠스는 가능성과 현실성은 서로 본질(essence, [덴] Væsen)에서가 아니라 존재(being, [덴] Væren)에서 다른 것<sup>52)</sup>이라고 말한다. “아직은 비존재인 이러한 존재는 바로 가능성”이고, “존재하고 있는 존재는 현실의 존재, 또는 현실성”이며, “생성의 변화(the change of coming into existence)는 가능성으로부터 현실성으로의 이행”<sup>53)</sup>이다. 실존(existence)은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존재 또는 현실성과 관련된다. 모든 실존은 존재하지만, 모든 존재가 실존 혹은 현실성인 것은 아니다.<sup>54)</sup> 현실성은 가능성과 필연성의 종합이다.<sup>55)</sup> 즉 자기 한계 규정으로서 필연성을 버리지 않고 자기가 되어야 하는 가능성을 성취할 때, 이 현실화된 가능성(the active possibility)이 바로 현실성이다.<sup>56)</sup> 그러나 가능성

49) *CUP (Vol. I)*, p. 320. 여기에서 윤리적 관점은 마땅히 되어야 할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선택함으로써 현실성으로서의 자기를 획득하는 윤리적 실존의 인생관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자기 외부의 대상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심미적 인생관과 대조된다. 윤리적 실존에 관해서는 표재명의 『키에르케고어 연구』(서울: 지성의 샘 1995)의 pp. 75-76, pp. 86-90을 참조할 것.

50)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 시학』, 1448a 1, p. 345.

51) *CUP (Vol. I)*, p. 321.

52) Søren Kierkegaard, *Kierkegaard's Writings, VII: Philosophical Fragments/Johannes Climacus*, edit. and trans. by Howard V. Hong & Edna H. Hong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pp. 73-74, 표재명 옮김, 『철학의 부스러기』(프리칭아카데미 2007), pp.142-143 (이후 영어판은 PF로 표기).

53) PF, p. 74, 『철학의 부스러기』, p. 142.

54) PF, p. 297. 각주6.

55) SD, p. 36, 『죽음에 이르는 병』, pp. 94-95.

은 인간에게 아직 없는 것이며, 자기를 관계로 구성한 신에 의해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인간 실존이 모순인 까닭은 유한자이면서도 자기 안에 무한성을 가능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 되어야 하는 과제를 떠맡는 실존적 관심은 개인 실존의 변형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실존 됨’을 궁극 과제로 파악하는 실존적 인간학의 관점에서는 자기 현실성을 자기의 시 작품과는 전혀 별개의 범주 속에서 가지며, 이념에 대해 상상으로만 관계하는 시인이 환상-실존(fantasy-existence), 실존에 도달하지 못한 실존 가능성으로 재해석된다.<sup>57)</sup>

### 3. 간접전달의 범주로서 ‘실험’

실존적 관점에서는 현실성을 결여하는 시인-실존이 부정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전달(communication)의 측면에서는 언어를 매체로 하는 시인이 탁월한 위치에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 대로 있을 법한 이야기를 통해 보편적인 것을 전달하기에 더더욱 그렇다. 클리마쿠스에 의하면 현실성과 관련하여 최고의 파토스가 행위라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말(words)이 최고의 파토스다.<sup>58)</sup> ‘말’은 심미적 파토스(aesthetic pathos)이며 상상력에 의해 실재보다 더 그럴 듯한 내용을 지어내는 시인의 파토스다.<sup>59)</sup> 키에르케고어는 독자들이 실존의 모순을 자각하고 자기 내면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려고 스스로 시인이 되었다. 현대적 시인이 아닌 그리스적 의미의 시인, 즉 비극 작가처럼 익명의 저자들과 그들이 창조한 인물들을 통해 상이한 인생관을 제시하고자 했다.<sup>60)</sup> 그는 1840년 일지에 “나는 역사적-

56) *SD*, pp. 38-39. 『죽음에 이르는 병』, p. 60.

57) 시인 정의는 Søren Kierkegaard, *JP. VI* 6300, p. 85. 환상-실존/실존가능성은 *CUP (Vol. I)*, pp. 252-253 참조.

58) *CUP (Vol. I)*, pp. 389-390.

59) 심미적 파토스에 관해서는 임규정의 논문, 「시인의 실존: 키르케고르의 시인과 시의 개념에 관한 연구 1.」, 『철학·사상·문화』 14 (2012), pp. 185-213을 참조할 것.

60) 1846년, 키에르케고어는 『후서』의 끝에서 익명으로 발표했던 8권의 책과 3편의 기사들을 열거하고 자신이 실제 저자임을 공개했다. 그는 자신과 익명들의 관계를 대사를 일

현실적인 것보다 '실험'을 선호한다”<sup>61)</sup>고 기록하고 있다. 현실성과 가능성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와 우화에 관한 레싱의 언급<sup>62)</sup>을 참조하면서, 이후 몇몇 익명을 통해 '실험' 개념을 발전케 했다.

사고 실험([덴] Tankeexperiment)이자 '심리학적 실험([덴] psykologisk Experiment)'인 '실험'은 키에르케고어의 '간접전달(indirect communication)'과 관련된다.<sup>63)</sup> 클리마쿠스는 '상상의 구성(imaginary construction, [덴] Experiment)'으로서 '실험'이 이중적으로 반영된 전달 형식(a doubly reflected communication form)이라고 말한다.<sup>64)</sup> 키에르케고어가 계획했으나 실행되지 않은 강의, 『윤리적 전달의 변증법과 윤리-종교적 전달의 변증법』의 원고에는 이중 반영<sup>65)</sup>과 관련하

---

리주는 프롭프터와 연극 무대 위의 배우들에 비유하면서, 익명의 저술에는 자신의 말은 단 한마디도 없다고 밝혔다. *CUP (Vol. I)*, p. 625 참조.

61) *JP. III* 2373, p. 28.

62) “우화에서, 우화 작가(maker)는 하나의 관념(idea)을 지각 가능한 형태[직관, intuition]로 가져오기만 바란다.”: Søren Kierkegaard, *Kierkegaard's Writings, VI: Fear and Trembling/Repetition*, ed. and trans. by Howard V. Hong & Edna H. Hong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Historical Introduction, xxiv, 각주 41 인용 (이후 *Fear and Trembling*은 *FT*, *Repetition*은 *R*로 표기).

63) Søren Kierkegaard, *R*, Historical Introduction, xxx; *JP. I* 633. 키에르케고어는 지식의 전달은 직접적으로, 능력(capacity)의 전달은 간접적으로 이뤄진다고 보았다 (*JP. I* 651). 간접전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JP. I* 648-653, pp. 267-290.

64) *CUP (Vol. I)*, p. 263.

65) 키에르케고어는 이중 반영 개념을 직접적으로 논하지 않았으며, 곳곳에서 산만하게 언급하는데 주로 다음 논의들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1) 간접전달 2) 주체적 사상가 3) 실존의 변증법. 키에르케고어의 저술 가운데 이 용어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후서』이며, 여기서 첫 번째 개념 설명이 제시된다 (*CUP (Vol. I)*, p. 76) 클리마쿠스에 따르면 이중 반영에서 첫 번째 반영은 어떤 사상이 낱말에서 적절한 표현을 찾는 것, 즉 표현된 사상과 그것의 정확성의 관계를 다룬다. 이것은 하나의 진리 혹은 확신과 관련된다. 두 번째 반영은 두 가지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데, 첫 번째 관계는 전달자와 전달형식 간에 나타난다. 두 번째 관계는 전달자와 전달 속에 표현되고 있는 진리에 대한 그 또는 그녀의 관계 사이에서 발생한다. 이중 반영은 간접전달에서, 전달자와 수신자 간의 관계에서 그리고 실존의 변증법에서 일어나는 반영들의 복수성(複數性)을 표현한다. 간접전달의 핵심으로서 이중 반영은 한 개인을 신(神)과 관계 맺게

여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윤리적으로 직접적 관계는 없으므로, 모든 전달은 이중 반영을 거쳐야 한다. 첫 번째 반영에서는 전달이 이뤄진다. 두 번째 반영에서는 그것이 철회된다([텐] tages tilbage).<sup>66)</sup>

키에르케고어가 “윤리적으로 직접적 관계는 없다”고 할 때 전제하는 것은 신(神)이 유일한 스승-교사(the master-teacher)이며 모든 인간은 배우는 자라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권위를 가질 수 없다. 전달자는 언제나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이다. 모든 사람이 신-관계 안에서(in the God-relationship) 홀로 서게 되는 것, 이것이 그의 과제이며 간접전달의 목표다.<sup>67)</sup> 이런 이유 때문에 키에르케고어는 저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우고자 했다. 익명의 저자에 의한 간접전달을 통해, 더 나아가 익명의 저자가 창조한 가상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심리학적 실험’ 형식을 통해서 가급적 독자와 거리를 둬으로써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을 극구 피한 것이다. 하지만 저자가 글을 쓰면서 독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익명의 저자들은 키에르케고어의 인격(person)에 우유적(偶有的, accidental)

---

하는 궁극 목표를 지닌다. 이중적으로-반영된 개인은 그렇지 못한 개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데, 이 차이는 그 또는 그녀를 영원의 차원에 두고, 그들의 단독성을 보장한다. J. Stewart, S. M. Emmanuel, & W. McDonald (eds.), *Kierkegaard's concepts: Tome II: Classicism to Enthusiasm* (KRSRR vol. 15)(Surrey: Ashgate Publishing 2014) pp. 195-196, p. 198 참조 (이후 *Kierkegaard's concepts II*로 표기).

66) *JP. I* 649, p. 374. 마지막 문장의 덴마크어 ‘tages tilbage’를 흥 부부의 영역본에서는 ‘recaptured(되찾은, 상기된)’로 번역했으나, 키에르케고어 개념 사전의 ‘이중 반영’ 개념 집필자는 ‘taken back(회수된, 철회[취소]된)’을 택하고 있다 (J. Stewart, S. M. Emmanuel, & W. McDonald [eds.], *Kierkegaard's concepts II*, p. 196) ‘tages tilbage’의 뜻이 ‘withdrawn’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철회되다’로 번역했다.

67) *JP. I* 649, p. 273 참조.

기초를 두지 않고, 작품 그 자체에 본질적(essencial) 기초를 둔다.<sup>68)</sup> 따라서 키에르케고어를 닮은 복사판이 결코 아니다. 키에르케고어의 개인적 현실성과는 별개의 시적 현실성을 지닌 익명들은 심미적이거나 윤리적인 인생관의 인격화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각자의 인생관과 고유한 개성에 기초하여 말하고 행동한다. 상상의 구성에서 심리학이 요구되는 것도 가상의 인물들에게 인격적 통일성을 부여해야 하는 필요 때문이다. 더욱이 익명의 저자가 상상의 구성 속에 창조한 인물은 원저자와의 틈새가 더욱 크게 벌어져서 둘은 전혀 동떨어진(remote) 관계가 된다. 이처럼 상상의 구성 형태로 이뤄지는 전달은 그 자체로 대립(an opposition)을 창조한다. 또한 독자와 저자 사이에 깊은 틈새를 마련하여 양자의 내면성(inwardness)<sup>69)</sup>을 확고하게 분리해 놓는다. 따라서 직접적 이해는 불가능하게 된다.<sup>70)</sup>

심리학적 실험의 목적은 원저자를 지우고 독자를 상상의 구성 안으로 끌어 들여 실존적 모순과 대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모순은 이미 일어난 실제적인 무엇으로 묘사될 수 없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련의 가능성으로 불러낼 수 있을 뿐이다.<sup>71)</sup> 모든 실험이 결과를 알 수 없는 가능성 속에서 진행되듯 상상의 구성은 확실한 지식이나 결론을 주지 않는다. 반면 표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가능한 현실성(동시대)에 근접하고자 한다.<sup>72)</sup> 그렇게 독자로 하여금 동시대의 현실성이 할 수 있는 이상으로 동시대적이 되도록 만든 다음, 결론을 주지 않고 움짝 달짝 못하게 내버려 둔다.<sup>73)</sup> 클리마쿠스는 '수난(suffering)'이라는 종교적 범주를 다룬 익명의 저자 타키

68) *CUP (Vol. I)*, p. 625. \* 이탤릭체는 원문에 따름.

69) 『불안의 개념』에서 내면성은 주체성으로 정의된다 (*CA*, p. 141; 『불안의 개념』, p. 365). 『후서』의 클리마쿠스는 “주체성, 내면성이 진리다”를 자신의 명제로 삼았다 (*CUP (Vol. I)*, p. 281).

70) *CUP (Vol. I)*, p. 263.

71) J. Stewart 외, *Kierkegaard's concepts V*, p. 164.

72) *SLW*, p. 656-657 참조.

73) *CUP (Vol. I)*, p. 289.

투르누스(Frater Taciturnus, 라틴어로 ‘침묵의 형제’라는 뜻)가 결론을 제시하지 않은 사실을 환기한다. 그에 따르면 결론의 부재는 명백한 내면성의 속성이다.<sup>74)</sup> 결론이란 외면적인 무엇이며, 결론의 전달은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사이의 외면적 관계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상상의 구성은 고의적으로 약 올리는 전달의 철회다. 이것은 실존하는 사람(an existing person)을 위해 글을 쓰는 실존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 관계가 기계적인 암송자(暗誦者)를 위해 글을 쓰는 기계적 암송자의 관계로 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클리마쿠스는 원저자와 독자 사이에 있는 상상의 구성의 위치를 사이 존재(the being-in-between, [덴] Mellemværende)<sup>75)</sup>라고 부르는데, 이 사이 존재는 내면성에서 서로 떨어져 있는 (away from each other in inwardness) 둘의 내면성을 고무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 앞에 선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개인의 단독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시(그리스적 의미의 시, 곧 비극)와 심리학적 실험은 모두 관객/독자 편에서의 영향 받는 능력을 전제한다. 하지만 영향 받은 결과는 상이하다. 시가 영웅의 고통 속에서 자신을 상실하는 방식으로 영향 받는 관객의 자기중심성을 제거하는 반면, 심리학적 실험은 독자로 하여금 자기 내면성에 주의를 돌리게 하는 것, 다시 말해 독자가 실존하는 개인(an existing individual)으로서 자기 자신에게 무한하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외부 세계가 사라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sup>76)</sup>

#### 4. ‘심리학적 실험’의 의미

키에르케고어는 클리마쿠스의 『후서』에서 익명의 저술과 저자들에 대한 종합적 논평을 제시했다.<sup>77)</sup> 여기서 그는 익명의 저자들을 “시적으로 현실적인 주체

74) *CUP (Vol. I)*, p. 289.

75) *CUP (Vol. I)*, p. 264. \* 이탤릭체는 원문에 따름.

76) J. Stewart 외, *Kierkegaard's concepts V*, p. 163.

77) *CUP (Vol. I)*, p. 264. 2장에 붙인 “동시대 덴마크 문학의 성과에 대한 일별(A

적 사상가(poetically actual subjective thinker)”로 지칭하면서, 시화(詩化)된 저자들 모두가 명확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며, 상상의 구성은 심리적으로 일관된 그들의 작품임을 명시하고 있다.<sup>78)</sup> 이 가운데 맨 나중에 발표된 『인생길의 여러 단계들』(이후 『단계들』로 약칭)의 3부 「“유죄냐?”/ “무죄냐?”: 수난 이야기」의 저자 타키투르누스는 ‘심리학적 실험’을 가장 광범위하게 전개한 인물이다.<sup>79)</sup> 따라서 그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심리학적 실험’의 미학적이고 인간학적인 의의를 고찰하는 것으로 논의를 매듭짓고자 한다.

타키투르누스의 글은 상상의 구성인 “유죄냐?”/ “무죄냐?”와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유죄냐?”/ “무죄냐?”」는 약혼녀와 파혼한 퀴담(Quidam, ‘어떤 남자’를 의미)의 불행한 사랑이야기<sup>80)</sup>다. 년도를 밝히지 않고 월, 일과 밤낮의 시간대만 적힌 일기들은 매일 ‘일 년 전 오늘’이라는 구절로 시작된다. 일기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회고록인 셈이다.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는 퀴담과 콰이담(Quaedam, ‘어떤 여자’를 의미)의 관계에 집중된 ‘수난이야기’를 만든 타키투르누스의 관점을 제시한다. 여러 층으로 구성된 이 기묘한 실험의 한 층은 콰이담에게 종교적인 것을 알려주고자 기획하고 그녀를 실험하는 퀴담을 제시한다. 또 하나의 층은 콰이담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발전을 관찰하는 퀴담을 보여

---

Glance at a Contemporary Effort in Danish Literature)”과 부록, “처음이자 마지막 해명(A First and Last Explanation)”을 참조할 것.

78) *CUP (Vol. I)*, pp. 626-628 참조.

79) J. Stewart 외, *Kierkegaard's concepts V*, p. 159.

80) 키에르케고어가 약혼녀였던 레기네와 파혼한 실화를 『단계들』에서 참조하고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컴스(Bruce H. Kirmmse)의 경우 파혼할 때 레기네에게 보낸 실제 편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폰하임(Paul Sponheim)은 라우리(Walter Lowrie)가 번역한 『단계들』의 서문에서 『단계들』을 자서전 연습처럼 읽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라우리 역시 역사 서문에서 자신의 쓴 키에르케고어의 전기에서 부적절한 뿐 아니라 오독한 부분이 있음을 시인했다. 흥 부부의 영문판에서는 라우리가 여전히 역사 서문에서도 “퀴담의 일기는 모든 점에서 키에르케고어의 불행한 사랑 이야기”라고 쓴 것을 지적하면서 정당화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Jon Bartley Stewart & Katalin Nun (ed.), *Kierkegaard's Pseudonyms* (vol. 17), p. 70 각주 28; *SLW*, Historical Introduction, xv 참조.

준다. 이 발전은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오직 타키투르누스의 상상의 구성 안에만 서사적으로 실존한다. 또 다른 층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행동하고 관찰하는 타키투르누스가 있다. 또 ‘수난이야기’를 통해 상상력, 가능성, 종교적인 것 그리고 결혼 등의 문제들에 관해 배우는 ‘친애하는 독자’를 위한 층도 내포되어 있다.<sup>81)</sup> 겹겹의 층으로 구성된 ‘상상적 구성’의 중심을 차지하는 수난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즉 퀴담은 어떤 이유로 콰이담과의 약혼을 파기했는가?

퀴담은 4월 26일 아침에 쓴 일기에서 “[...]나의 정신-실존(spirit-existence, [덴] Aands-Existents)의 가장 깊은 호흡([덴] Åndedræt) 없이는 견딜 수도 없고, 그것을 희생할 수도 없다. 그것이 모순(a contradiction)이며, 그것 없이는 진정한 내가 아니기 때문”<sup>82)</sup>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반면 콰이담은 이런 호흡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을뿐더러, 하나의 환영을 세우고 그것으로 만족한다.<sup>83)</sup> 이 때문에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둘은 언어가 다르고, 세계가 다르며, 그들 사이에는 슬픔으로 드러나는 간격이 존재한다. 윤리적인 것(약혼)과 종교적인 것(실존)의 모순 사이에서 갈등하던 퀴담은 마침내 파혼을 결행한다. 클리마쿠스는 자신 안의 대립에 의해 규정된 내면성을 소유한 퀴담의 두드러진 내면성과 비교할 때, 헌신적인 것으로서 여성의 내면성은 그 방향이 명백히 외면적인 까닭에 내면성이 덜하다고 말한다.<sup>84)</sup> “관찰자이며 시적이고 세련된 거리의 시찰자”<sup>85)</sup>로서, 전적으로 이야기 바깥에 서 있는 타키투르누스는 퀴담의 실존에 비해 실존적으로 낮은 영역에 있다고 자신을 규정한다. 그는 유머가(humorist)인데, “유머는 믿음의 아니며 믿음 앞에 오는 것, 믿음 이전의 실존-내면성의 최종 단계이다.”<sup>86)</sup> 환영(illusion)에 만

81) Jon Bartley Stewart & Katalin Nun (ed.). *Kierkegaard's Pseudonyms* (vol. 17), p. 72.

82) *SLW*, p. 315.

83) *SLW*, p. 315 참조.

84) *CUP (Vol. I)*, p. 291.

85) *SLW*, p. 456.

86) *CUP (Vol. I)*, p. 291 참조. 클리마쿠스는 인간의 실존 영역(Existenzsphäre, sphere of existens)을 심미적, 윤리적, 종교적인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이 접하는 곳에 두 개의 경계영역인 아이러니와 유머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 종교적 단계는 윤리-

죽하는 심미적 실존인 콰이담과 종교적 실존으로 향하는 콰이담의 '수난이야기'는 가장 높은 실존 영역인 종교적 단계를 전달한다. 이야기의 중심 모티프인 '수난(suffering)'은 심미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실존-내면성과 구별되는 종교적 실존의 내면성이다. 수난 당할수록 종교적 실존이 되며, 수난은 계속된다. 자연히 결론도 없다. 클리마쿠스는 "심미적 실존이 본질적으로 즐거움(enjoyment)인 반면, 윤리적 실존은 본질적으로 투쟁과 승리, 종교적 실존은 수난"이라고 말한다.<sup>87)</sup>

타키투르누스는 '상상적 구성'에서 종교적인 문제, 즉 사죄(赦罪)를 제시했음을 강조한다.<sup>88)</sup> 누구나 이런 문제로 고뇌할 수는 있겠지만 심리학자가 해결해 줄 일은 결코 아니다. 키에르케고어는 근본적으로 '교화적인 것(upbuilding)'<sup>89)</sup>을 지향했다. 교화적인 것은 중립적인 성격의 과학성이나 학문성과 전혀 다르고 질적으로도 다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교적인 삶이며, 삶에 대한, 인격의 현실성에 대한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관심, 곧 진지함이다. 따라서 그의 관찰도 과학적 관찰과 구별되어야 한다. 타키투르누스는 "상상적으로 구성하는 심리학자에게는 통계학적 일람이 쓸모없으며, 따라서 엄청난 수의 사람들도 필요치 않다"<sup>90)</sup>고 함으로써 과학적 심리학과 선을 긋는다. 클리마쿠스는 윤리적으로 관찰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으며, 단 하나의 윤리적 관찰이 있을 뿐인데 그것은 바로 '자기 관찰'이라고 역설한다.<sup>91)</sup> 세계든 인간이든 '윤리적으로' 관찰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므로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적 관찰자가 다른 사람을 관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인식을 목표로 하는 반성적 관찰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

---

종교적(Ethisch-Religiöse)인 종교성A와 그리스도교적인 역설적 종교성B로 다시 구분된다 (CUP (Vol. I), p. 521, pp. 553-559 참조). '유머가'는 윤리적 실존과 종교적 실존 사이의 경계인 유머의 영역에 있는 실존을 지칭하며, 유머가인 타키투르누스는 종교적 실존으로 이행하는 콰이담보다 낮은 실존 영역에 위치한다.

87) CUP (Vol. I), p. 288.

88) SLW, p. 481.

89) SD, p. 5, 『죽음에 이르는 병』, pp. 46-47.

90) SLW, p. 481.

91) CUP (Vol. I), p. 320.

이 시베른이 말한 바, “자신을 이해하려면 [...] 시선을 다른 사람들의 삶과 행동에 맞춰야 한다”의 진정한 의미다. 또한 “먼저 자신을 아는 것을 배워야 한다”<sup>92)</sup>는 것이야말로 키에르케고어 인간학의 출발점이다. ‘심리학적 실험’은 인간 정신을 대상화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과 충돌하지 않고, 상상의 관찰자를 설정함으로써 실험자로부터 실험적 주체로 관점을 이동한다. 이처럼 동기와 방법, 목적 전체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인간 실존에 대한 본질적 관심을 견지하는 것은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적 실험’이 지니는 진지함이며 인간학적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키에르케고어에게 있어서 ‘심리학’은 철학적 인간학 이상의 무엇을 의미한다. 심리학이나 심리학적이라는 말이 ‘실험’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 특별히 미학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여러 익명의 저자들과 가상의 상황 속에서 행동하는 인물들을 만들어낸 창작자로서 키에르케고어는 분명 그리스적 의미의 시인(maker)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1850년의 일지에서 키에르케고어는 “실존적인 것의 묘사는 주로 인생에서의 깨달음 아니면 시적 표상”<sup>93)</sup>이라고 말했다.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라(loquere ut videam)”<sup>94)</sup>를 실천한 그는 학문적인 것의 추상성과 객관성에 맞서서 실존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시적인 방식으로, 즉 미학적으로 제시했다. 익명에 의한 간접전달 방식은 그 자체로 허구적 인물 창조라는 시적 과정을 함축한다. 이런 방식은 직접 전달이 가능한 객관적 지식이 아닌 살아 움직이며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실존의 전달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욕욕의 화신 돈 후안, 냉혹한 유혹자 요하네스, 믿음을 통해 종교적 실존으로 이행하는 퀴담 등은 모두 익명을 통해 시적 현실성을 지닌 실존 가능성들로 독자에게 제시된다. 상상력에 기초한 창조적 작품이라는 점에서 ‘실험’은 미학적 결과물이며, 언어에 의해 매개된 외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키에르케고어적 의미의 심미적인 것이다. 하지만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적 실험은 일반적인 소설과는 구별된다. 궁극적으로 독자

92) *JP. V* 5100, p. 36.

93) *JP. I* 1508, p. 461.

94) *JP. I* 1508, p. 461.

와의 변증법적 대화를 통해 실존의 변형을 자극하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심리학적 실험은 미학적 차원을 넘어서 교화적인 것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 IV. 결론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 같은 발견은 1930년대에 유럽 각지에서 우후죽순 생겨나, 현재 미국에 도입된 '실존주의적 심리학(existential psychology)' 덕분이다. 실존주의 심리학은 실존의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특성을 무시하는 정신분석학과 실험심리학의 인간 개념을 비판하는 데 키에르케고어를 유효적절하게 이용했다. 더 나아가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 자체를 연구하고 활용하고자 시도하기도 했다.<sup>95)</sup>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정신분석에 실존주의 철학을 접목한 롤로 메이(Rollo May)는 역동적 심리학(dynamic psychology)에 미친 키에르케고어의 가장 근본적인 공헌 중 하나가 관계로서의 진리에 대한 공식화이며, 또 다른 하나는 헌신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라고 지적한다.<sup>96)</sup> 심리치료에서 내담자 스스로 고통과 절망에서 구제 받고,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는 희망을 지녀야 그의 환상을 알아내고, 방어와 합리화를 노출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착수할 수 있기에 관계성이나 주체적 헌신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는 것이다. 메이는 키에르케고어의 자기의식의 중요성에 대한 통찰, 내면의 갈등에 대한 분석, 자기 상실과 정신 신체적(psychosomatic) 문제들, 특별히 불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에 경의를 표하면서 그를 역대 심리학적 천재들 중 한 사람으로 평가했다.<sup>97)</sup>

95) Kresten Nordentoft, *Kierkegaard's Psychology*, introduction, xix.

96) Rollo May, *The Discovery of Being*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15 [1983]), pp. 64, 66-68 참조.

97) Rollo May, *The Discovery of Being*, p. 63 참조.

메이가 언급한 키에르케고어의 통찰들은 그의 실존적 인간학을 구성하는 핵심 주제들이기도 하다. ‘심리학적 실험’은 이 주제들을 담아내는 형식 내지는 전달의 수단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키에르케고어 자신을 위한) 자기교육이자 교화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실천이다. 간접전달의 근본정신에서 드러나듯 키에르케고어 자신을 독자의 교사가 아닌 참교사인 신과 독자 사이에서 양자를 매개하는 전달자로 간주했으며, 전달자의 구실마저 익명의 저자들에게 넘기고 독자들과 같이 끊임없이 결단하고 변형되어야 할 단독자로 머물고자 했다. 이처럼 실존에 대한 근본 관심에서 ‘실험’이 촉발된 것이기에, 본고는 ‘인간학적 성찰’이라는 기획의 큰 틀에서 아리스토텔레스적 시 개념에 착안하여 가능성을 다룬 심리학적 실험의 정립 과정을 살펴보았다. 동시에 ‘심리학적 실험’이 지니는 미학적 독자성에도 주목하고자 했다. 극적으로는 뚜렷한 구실을 하지 않는 관찰자(타키투르누스)의 존재는 인간 내면의 수많은 자아들 간의 갈등을 거리를 두고 관망하는 관찰자적 자아를 재현한다. 한 사람 안에 파렴치한 유혹자, 사랑에 목숨을 바치는 낭만가, 종교적 이상을 위해 사랑을 포기하는 귀담이 상호 대립하는 실존 가능성들로 공존할 수 있고, 이것들은 오직 선택과 결단을 통한 행동에 의해서만 현실성으로 실존하게 된다. 실제 삶에서는 하나의 가능성을 선택할 경우 나머지 가능성들은 가지 않은 길로 남겨 둘 수밖에 없다. 키에르케고어는 치밀한 관찰과 심리학적 수단을 동원하여 상상적 구성 안에서 다양한 가능성들을 시적 현실성으로 구현하고자 했다. 관념의 차원에서나마 어떤 실존 가능성을 선택해야 할지 독자로 하여금 고뇌를 하도록 갈등 상황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 상황은 재미도 환상적 감미로움도 형식적 아름다움도 없는, 그저 일상적이고 치열한 실존적 물음으로 가득하되 답이 주어지지 않는 불친절한 가공의 현실이다. 때문에 여기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독자 편에서의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며, 그 진지함의 정도에 따라 예기치 않은 도전과 마주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특징들은 현대 독자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는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적 실험의 구태의 연함이 아니라 19세기 철학, 문학, 심리학을 뛰어넘어 미래를 선취한 급진성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다.

본 논고는 '심리학적 실험'이 무엇이나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그간 논의 되지 않았던 주제를 조명하고자 했다. 추후 키에르케고어의 여러 저술에서 수행된 심리학적 실험에 대한 분석이나 키에르케고어 시대를 전후하여 등장한 문학, 연극 등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미학적 의의를 조명하는 심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심리학적 실험'으로 논의를 좁히다보니 실존의 삼 단계나, 간접전달 등 굵직한 개념들의 설명에 지면을 할애하지 못하고 각주로 대신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키에르케고어의 직접적인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 가능한 『일지』를 참조하고 인용하려 했다. 줄고를 읽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은 동료 연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 작은 논문이 추후 미학적 탐구의 여지가 풍부한 심리학적 실험과 관련된 후속 연구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

\* 논문투고일: 2018년 4월 15일 / 심사기간: 2018년 4월 16일-2018년 5월 15일 / 최종게재 확정일: 2018년 5월 20일.

## 참고문헌

- 임규정, 「시인의 실존: 키르케고르의 시인과 시의 개념에 관한 연구 1.」, 『철학·사상·문화』 14, 2012, pp. 185-213.
- 표재명, 『키에르케고어 연구』, 서울: 지성의 샘 1995.
- \_\_\_\_\_, 『키에르케고어의 단독자 개념』, 서울: 서광사 1992.
- Aristotle, 『니코마코스 윤리학』, 천병희 옮김, 파주: 도서출판 숲 2013.
- \_\_\_\_\_, 『수사학 / 시학』, 천병희 옮김, 파주: 도서출판 숲 2017.
- Kierkegaard, Søren, *Kierkegaard's Writing, III, Either/Or (Part I, II)*, ed. and trans. by Howard V. Hong & Edna H. Hong.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 \_\_\_\_\_, *Kierkegaard's Writings, VII: Philosophical Fragments/Johannes Climacus*, ed. and trans. by Howard V. Hong & Edna H. Hong,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표재명 옮김, 『철학의 부스러기』, 프리칭아카데미 2007.
- \_\_\_\_\_, *Kierkegaard's Writings, XI: Stages on Life's Way*, ed. and trans. by Howard V. Hong & Edna H. Hong,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 \_\_\_\_\_, *Kierkegaard's Writings, VI: Fear and Trembling/Repetition*, edit. and trans. by Howard V. Hong & Edna H. Hong.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 \_\_\_\_\_, *Kierkegaard's Writings, XII: Concluding Unscientific Postscript to Philosophical Fragments (Vol. I, II)*, edit. and trans. by Howard V. Hong & Edna H. Hong,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_\_\_\_\_, *Sickness Unto Death: A Christian Psychological Exposition for Upbuilding and Awakening*, edit. and trans. by Howard V. Hong &

- Edna H. Hong,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임규정 옮김, 『죽음에 이르는 병』, 파주: 한길사 2007.
- , *Søren Kierkegaard's Journals and Papers*. Vol. I-VII, ed. and trans. by Howard V. Hong & Edna H. Hong, Bloomington/Lond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67-1978.
- , *The Concept of Anxiety: A Simple Psychologically Orienting Deliberation on the Dogmatic Issue of Hereditary Sin*, edit. and trans. by Howard V. Hong & Edna H. Hong.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임규정 옮김, 『불안의 개념』, 파주: 한길사 1999.
- Klempe, Sven Hroar, *Kierkegaard and the Rise of Modern Psychology (History and Theory of Psychology)*, Transaction Publishers 2014.
- , “Kierkegaard and Psychology as the Science of the Multifarious Life”, in: *Intergrativ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Science* 47, Sep. 2013, pp. 367-375 (DOI: 10.1007/s12124-013-9235-1).
- Koch, Carl. Henrik, “Kierkegaard's relations to Danish philosophy in the Golden Age”, in: *A Companion to Kierkegaard*, edit. by J. Stewart, Blackwell Publishing Ltd. 2015, pp. 66-79 (DOI: <https://doi.org/10.1002/9781118783795.ch4>).
- Lübcke, Poul, “Kierkegaard and Indirect Communication”, in: *History of European Ideas* 12 (1), 1990, pp. 31-40 (DOI: [https://doi.org/10.1016/0191-6599\(90\)90116-V](https://doi.org/10.1016/0191-6599(90)90116-V)).
- McCarthy, Vincent, *Kierkegaard as Psychologist*,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2015.
- Mackey, Louis, *Kierkegaard: A Kind of Poe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71.

- Malantschuk, Gregor, *Kierkegaard's Thought*, edit. and trans. by Howard V. Hong and Edna H. Hong,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5.
- May, Rollo, *The Discovery of Being*.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15 (1983).
- Mondin, Battista, *Antropologia Filosofica*, 허재윤 옮김, 『인간: 철학적 인간학 입문』, 서광사 1996.
- Nordentoft, Kresten, *Kierkegaard's Psychology*,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1978.
- Pind, Jørgen L., “A Tale of Two Psychologies: The Høffding–Lehmann Controversy and the Establishment of Experimental Psychology at the University of Copenhagen”, in: *Journal of the History of the Behavioral Sciences*, vol. 45 (1), Winter 2009, pp. 34–55 (DOI: <https://doi.org/10.1027/1901-2276.61.2.46>).
- , “An education in psychology: The development of psychology as a field of study at the University of Copenhagen 1850–1950”, in: *Nordic Psychology* 61, 2012, pp. 46–61 (DOI: <https://doi.org/10.1027/1901-2276.61.2.46>).
- , “The Psychologist as a Poet: Kierkegaard and Psychology in 19th–Century Copenhagen”, in: *History of Psychology*, vol 19 (4), Nov. 2016, pp. 352–370 (DOI: <http://dx.doi.org/10.1037/hop0000039>).
- Sharpless, Brian A., “Kierkegaard's Conception of Psychology”, in: *Journal of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Psychology*, Vol. 33, No. 2, 2013, pp. 90–106 (DOI: <http://dx.doi.org/10.1037/a0029099>).
- Stewart, Jon Bartley (ed.), *Kierkegaard and his Danish Contemporaries, Tome I, Philosophy, Politics and Social Theory* (KRSRR [Kierkegaard Research: Sources, Reception and Resources], vol. 7), New York: Routledge 2016 (2009).

- \_\_\_\_\_, *Kierkegaard and his Danish Contemporaries, Tome II, Theology* (KRSRR, vol. 7), New York: Routledge 2016 (2009).
- Stewart, J., Emmanuel, S. M. & McDonald, W. (eds.), *Kierkegaard's concepts: Tome I: Absolute to Church* (KRSRR, vol. 15), New York: Routledge 2016 (2013).
- \_\_\_\_\_, *Kierkegaard's concepts: Tome II: Classicism to Enthusiasm* (KRSRR vol. 15), Surrey: Ashgate Publishing 2014.
- \_\_\_\_\_, *Kierkegaard's concepts: Tome V: Objectivity to Sacrifice. Emmanuel* (KRSRR, vol. 15), Surrey: Ashgate Publishing 2015.
- Stewart, Jon Bartley & Nun, Katalin (ed.), *Kierkegaard's Pseudonyms* (KRSRR, vol. 17), Aldershot: Ashgate Publishing 2015.
- Tang, Chenxi, "Kierkegaard and the Culture of Psychological Experimentat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in: *KulturPoetik*, vol. 6, Issue 2 (1/1/2006), pp. 172-188 (Stable URL: <http://www.jstor.org/stable/40621771>).
- Turnbull, Jamie, "Saving Kierkegaard's Soul: From Philosophical Psychology to Golden Age Soteriology", in: *Kierkegaard Studies* (16 November 2011) pp. 279-302 (DOI: <https://doi.org/10.1515/9783110236514.279>).
- Vidal, Fernando, *The Sciences of the Soul: The Early Modern Origins of Psychology*, trans. by Saskia Brow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

##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키에르케고어가 익명으로 발표한 저술들에서 수행한 ‘심리학적 실험’을 주제로 한다. 키에르케고어에게 있어서 ‘심리학적 실험’ 혹은 ‘상상의 심리학적 구성’은 하나의 문학적 전략이다. 심리학적 실험을 통해 키에르케고어가 목적하는 바는 실존하는 개인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운동의 원천을 연구하는 것이다. 키에르케고어의 관심은 실제 상황 속의 역사적 개인들을 재현하는 데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상의 상황에 놓인 허구의 인물들을 구성하는 데 있었다. 그는 창작된 인물 안에서 일어나는 실존적 갈등을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했고, 심리학적 실험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 수단이었다.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으로서의 심리학과는 다르다. 따라서 본론 첫 부분인 2장은 키에르케고어 심리학의 형성 배경으로서 19세기 코펜하겐에서 전개된 철학적 심리학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담을 것이다. 3장은 인간학적 성찰의 기획 속에서 간접전달을 위한 수행 전략으로서 심리학적 실험이 정립되고 개념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살피고, 끝으로 실험의 목표와 의의를 논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고는 심리학적인 동시에 미학적인 키에르케고어의 ‘심리학적 실험’의 고유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 핵심어

간접전달, 상상의 심리학적 구성, 상상의 창작자, 실험하는 심리학, 심리학적 실험, 익명, 철학적 심리학, 키에르케고어

## ABSTRACT

## S. Kierkegaard's Psychological Experiment

Young-So Yoo\*

This treatise is on the 'psychological experiment' practised by Søren Kierkegaard in his pseudonymous writings. For Kierkegaard the 'psychological experiment' or 'imaginary psychological construction' is a literary strategy. Kierkegaard's aim is to study the source of movement that animates the existing individual. However, he is not interested in the representation of historical individuals in actual situations, but in the construction of fictional characters that are placed in hypothetical situations. The 'psychological experiment' enables him to dramatize an existential conflict in an experimental mode.

Kierkegaard's psychology is very different from how we understand psychology as science today.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attempts to establish a general framework of early history of philosophical psychology in Copenhagen, in the 19th century as formative background of Kierkegaard's psychology. In the next step, the conception of an imaginary psychological construction as a performative strategy for indirect communication will be discussed concretely. In conclusion, this essay will enlighten on the aesthetic

---

\* Hongik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7S1A5B5A02026647).

significance of Kierkegaard's psychological experiment.

**Key Words**

Experimenting Psychology, Imaginary Constructor, Imaginary Psychological Construction, Indirect Communication, Kierkegaard, Philosophical Psychology, Pseudonym, Psychological Experiment